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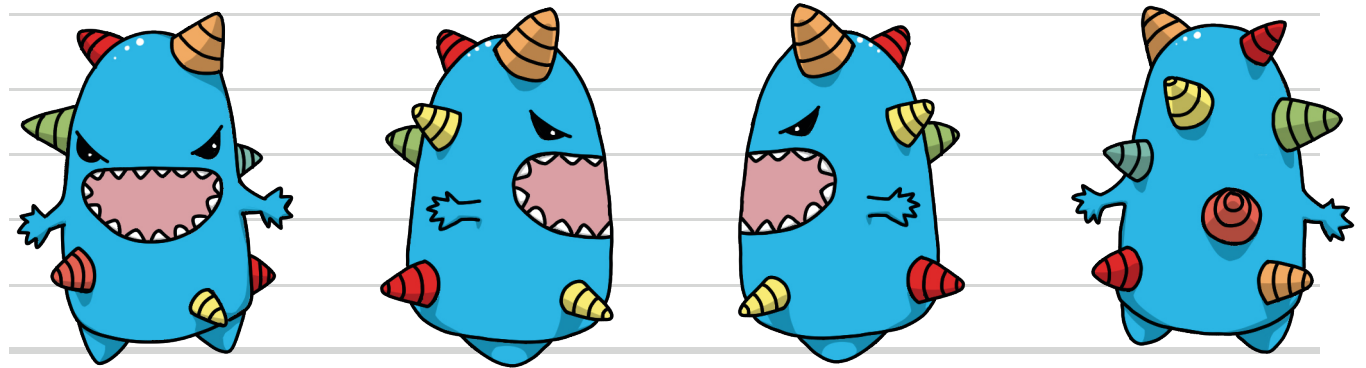
멜잡는 도채비

오랜 옛날 제주에는 멸치 풍년을 바라는 어부들은 도채비(도깨비의 제주 방언)에게 소원을 빌었다. 맛있는 음식을 정성들여 받치는 날이면 어김없이 멸치 풍년이 들었다. 멜 잡는 도채비는 제주 신화를 모티브로 한 캐릭터로 제주 바다 어디선가 낚시대를 드리우고 고기를 잡고 있을 도채비를 상상해 보자.





출신: 제주 나이: 가늠하기 어려움 악세사리: 오색빛깔 뿔장식





키워드: #도깨비#멸치#제주신화#소원

캐릭터 턴그라운드



CMYK 컬러

피부색		2EB6E4 C:67% M:7% Y:2% K:0%
뿔1		9DBF6C C:43% M:9% Y:74% K:0%
뿔2		DD2828 C:7% M:98% Y:97% K:0%
뿔3		E56252 C:5% M:76% Y:69% K:0%

뿔4		7AB9A9 C:53% M:9% Y:38% K:0%
뿔5		F1AA62 C:3% M:37% Y:69% K:0%
눈동자		000000 C:0% M:0% Y:0% K:100%
입안		DA9FA4 C:13% M:42% Y:25% K:0%

